

네팔 - 최근 악화된 반군과의 내전 진행경과

- 2001년 11월 23일 공산반군¹⁾의 일방적 휴전협정 파기로 재개된 내전은 금년 5월초 이루어진 정부군의 대규모 공격 및 이에 대한 반군의 기습 보복공격 등으로 인해 5월초 약 일주일동안에만 6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악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반군의 휴전협정 일방적 파기 후 이들의 거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11월 26일 3개월 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동시에 군 동원령을 발표하였음. 현재 반군과의 내전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네팔 정부는 5월 25일까지 1차 연장된 비상사태의 추가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네팔 총리는 5월 중 미국 및 영국을 방문하여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한 양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예정임. 이에 대해 미국은 네팔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의회에 식량 및 의약품 등의 지원을 위한 20백만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신청한 바 있음. 하지만 네팔 정부는 전쟁관련 무기류 및 군사용 물품의 직접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금번 정부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반군은 5월 9일 일방적으로 5월 15일부터 한달간의 휴전을 선언하였음. 이에 대해 네팔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1) 1996년 입헌군주제도의 붕괴를 통한 공산정권 수립 및 토지소유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면서 고 정부와 무력투쟁을 시작한 공산반군은 현재 네팔의 총 75개 지역 중 29개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동 내전으로 인해 지난 6년간 4,0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됨.